

〈특집 :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과 이운 그리고 복장유물〉

조선 후기 백담사(百潭寺)의 사적(史蹟)과 위상*

이 경 순 **

〈목차〉

- I. 머리말
- II. 화재와 이전
- III. 백담사와 암자의 승려들
- IV. 설악산의 명산화와 백담사의 위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설악산 백담사는 근현대기에 그 존재감을 널리 떨친 사찰이지만 전근대 사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 논문은 한용운이 작성한 「백담사사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백담사 관련 기문, 설악산 유람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선 후기 백담사의 역사상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 후기 백담사의 이전과 중수 과정에 편양문파에 속한 용암문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백담사 소속 암자의 불사에는 조선 후기 여러 고승들이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악산이 조선 후기에 널리 알려진 것은 17세기 이후의 김시습 추송 열기와 18세기 초 김창흡의 은거가 큰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

* 본 논문은 2023년 11월 4일에 개최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과 이운 그리고 복장 유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한 가운데 승려 설정은 김시습과 김창흡의 전승을 기반으로 유불의 공감을 이끌어 내 오세암과 영시암을 증창하는 활약을 했다. 설악산은 절의를 지키는 은둔지사의 명산으로, 백담사는 그러한 전통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도량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백담사의 위상은 19세기 경화세족의 원당이 설치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백담사, 백담사사적, 오세암, 영시암, 김시습, 김창흡, 홍길주, 설정, 김시습 초상화

I. 머리말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에 위치한 백담사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1944)과 관련된 사찰로 유명하다. 한용운의 출가 사찰이며,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 『님의 침묵』,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 등 그의 주요 저작이 집필되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백담사는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57년 복구되었고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의 말사로 있다. 설악산이 1960년대 국내 최대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백담사는 내설악 탐방의 거점이 되었고, 1980년대 말 제5공화국 청산 과정에서 전(前)대통령 부부가 은신처로 삼으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근래에는 만해사상 연구의 산실로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조계종 초심 납자들을 위한 기본선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백담사는 근현대기에 그 존재감을 널리 떨친 사찰이지만 전

근대 사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백담사가 처음에는 한계사(寒溪寺)라는 사명(寺名)으로 7세기 자장율사(慈藏律師, 590-658)에 의해 창건된 이래¹⁾ 연이은 화재로 절터를 옮겼고 사찰 이름도 몇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정도다. 오히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봉정암(鳳頂庵)을 비롯하여 오세암(五歲庵)과 영시암(永矢庵) 등 소속 암자의 명성이 널리 전해졌다.

그나마 백담사의 전근대 사적은 한용운이 편찬한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지(乾鳳寺及乾鳳寺本末寺誌)』에 수록된 「백담사사적(百潭寺史蹟)」에 근거해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백담사사적」은 연대 비정, 인물 행적의 서술 등에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전면적 사료 비판이 필요한 자료이다. 향토사학자 최병헌은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지』에 수록된 백담사 고기록과 조선시대 백담사 관련 시문을 번역하여 자료집 형태의 책을 편찬하면서, 「백담사사적」의 연대를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²⁾ 이 논문은 그러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백담사 관련 기문과 설악산 유람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선 후기 백담사의 역사상을 재구성하고, 설악산의 명산화 과정에서 백담사의 위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담사 역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불교사적 의미 탐구에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II. 화재와 이전

조선 후기 백담사 사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건봉사급건봉사본

1) 한용운, 「百潭寺史蹟」, 『乾鳳寺及乾鳳寺本末寺誌』, 건봉사, 1928(아시아문화사, 1977).

2) 최병헌, 『설악산 百潭寺』, 인제문화원, 2013.

말사지』에 수록되어 있다.³⁾ 1911년 일제의 사찰령 반포 이후 백담사는 1912년 본산 건봉사의 말사로 등록되었다.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지』는 1928년 한용운에 의해 편찬된 사지이다.⁴⁾ 한용운은 건봉사 말사이자 자신의 출가 사찰인 백담사의 연혁으로 「백담사사적」(이하 「사적」)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백담사의 속암(屬庵) 일람, 백담사의 건물, 토지, 임야, 보물, 탑, 부도, 비 등의 항목으로 당시 백담사 현황을 작성하고 사지 편찬에 참고했을 백담사와 속암의 역대 기록을 〈백담사고기록(百潭寺古記錄)〉이라는 제목 아래 덧붙였다. 이를 수록된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乾鳳寺及乾鳳寺本末寺誌』에 수록된 백담사 관련 기록(〈百潭寺古記錄〉)

순번	기록명	기록자	찬술연대
1	雪嶽山尋源寺事蹟記	龍岩門人 頓旭	1783
2	雪嶽山百潭寺山神堂創建記	麟松 在軒	1882
3	百潭寺重建記	印空門人 無盡	1920
4	江原道麟蹄郡雪嶽山百潭寺建築上樑文	栗庵	1921
5	雪華山百潭寺新鍾序	白華山人 雪月	1921
6	鳳頂庵重修記	戒心(松廣寺僧)	1781
7	江原道麟蹄縣雪嶽山鳳頂庵七創事蹟記	작자 미상	1870
8	五歲庵經閣重建記	鶴庵 鳴九	1889
9	五歲庵事蹟	雪華山人 無盡	1920
10	三淵金先生永矢庵遺墟之碑	洪鳳祚	1749
11	永矢庵改金佛事記	楓嶽過人	1760
12	永矢庵記	壺山 無盡	1920
13	江原道麟蹄郡雪山圓明庵創建記	鶴庵 鳴九	1912
14	江原道麟蹄郡雪嶽山圓明庵佛事序	鶴庵 鳴九	1912

3) 乾鳳寺, 『乾鳳寺及乾鳳寺本末寺誌』, 1928.

4) 한동민, 「일제강점기 사지 편찬과 한용운의 건봉사사적」, 『정도학연구』 14, 2010, 342쪽.

이 자료들은 당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작성 시기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있으며 백담사-봉정암-오세암-영시암-월명암 순으로 각각의 사적기, 중건기, 상량문 등이 망라되었다. 한용운은 이 기록을 활용하여 백담사의 역사를 연표 형식으로 정리한 「사적」을 기술했다.

「사적」에 의하면 백담사는 신라시대인 647년(진덕여왕 1), 자장에 의해 한계사라는 사명으로 개창되었다.⁵⁾ 창건 이후 백담사의 속암인 봉정암, 오세암, 영시암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적을 기록했지만 백담사의 연혁에는 화재 발생에 따른 절터 이전과 개명, 중수 사실만 기술했다. 그런데 한용운은 화재 발생과 사찰 이전, 사명 변경이 신라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걸친 사건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적」에 기록된 연혁은 다른 기록, 발굴 자료 등과 대조했을 때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사적」은 신라시대 이미 한계사 터를 이전하고 사찰 이름을 바꾼 것으로 기록했지만 고려시대 한계사의 존재는 승려 비문에서 확인된다.⁶⁾ 또한 고려 후기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한계사 주지 노각사(寒溪寺住持老覺師)라는 기록이 있다.⁷⁾ 뿐만 아니라 1985년 한계사

5) 1783년 頓旭이 기록한 「雪嶽山尋源寺事蹟記」에는 「사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한계사의 창건 설화가 소개되었다. 낭천현에 비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사냥꾼들이 짐승을 많이 죽여 산이 더럽혀지자 산신령이 하루 밤 사이에 절을 설악산으로 옮겨 한계사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그런데 한용운의 「사적」에는 이러한 전설을 수록하지 않았다. 한용운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지 편찬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구전 등은 연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 포항 보경사 圓眞國師 承迪(1171-1221)의 비에는 1214년 이전, 국왕이 승형에게 청평산 문수사와 설악산 한계사에 주지로 가도록 명하였으나 모두 고사하여 취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高麗國寶鏡寺住持大禪師贈諡圓眞國師碑銘并序」,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지식e음, 『금석문』.

7) 李奎報, 「古律詩」, 『東國李相國集』 권8.

지 발굴조사에서는 ‘한계사’라고 새겨진 조선시대 기와편이 발견되었다.⁸⁾

「사적」은 「설악산심원사사적기」(이하 「심원사사적기」)의 기록과 배치되는 점도 있다. 「사적」은 재익, 재화, 신열 등이 15세기 두 차례에 걸친 사찰 이전과 증건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심원사사적기」는 1783년 작성되었고 당시 찬자 돈육은 사찰에 주석하던 재익, 재화, 신열과 함께 사적기를 지었다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동시대인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들이며 이들의 활약, 즉 선귀사와 백담사 이전은 18세기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적」에 이러한 연대 비정의 오류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일부 백담사 고기록의 오류와 한용운의 착오가 더해졌다고 본다. 한용운은 「사적」에서 일본의 연호를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 대신 불기(佛紀)와 왕력(王曆), 간지(干支)로 연대를 표기하였다. 당시 기록들은 주로 간지로 연대가 표기되었다. 그중 7~17세기의 연혁에서 간지를 왕력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연대 고증의 오류도 여러 개 찾을 수 있다.⁹⁾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지』가 편찬된 1920년대 후반은 한용운의 생애 중 가장 바쁘게 사회 활동에 몰두하던 시기였다. 불과 1년 전인 1926년 『님의 침묵』과 『십현담주해』를 서울에서 출간했고, 1927년에는 신간회

8) 사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고려 공민왕대인 ‘至正 18년 3월 13일’(1358)이라 새겨진 기와와 함께 ‘崇禎 13년 己卯(1639)’, ‘順治 乙未(1655)’, ‘康熙 3년 甲辰(1664)’, ‘寒溪寺 康熙 22년 癸亥(1683)’라고 새겨진 조선시대 기와가 포함되어 있었다. 강원대학교박물관, 『한계사』, (강원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4집), 1985, 22-23쪽.

9) 한용운이 「백담사사적」에서 연대를 잘못 비정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세조 원년을 1456년 병자라고 하였는데, 세조 원년은 1455년이며 1456년은 세조 2년이다. 「사적」에는 1518년에 환적 의천(幻寂義天, 1603-1690)이 봉정암을 증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환적의 생존 연대와 맞지 않다. 마찬가지로 김창흡이 영시암을 창건한 것을 1648년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1709년의 잘못이다.

창립에 참여하여 경성지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대외활동에 전념했던 것이다.¹⁰⁾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지』는 1927년 건봉사 본말사 회의에서 편찬이 결의된 후 불과 1년 만에 발간되었다. 당시 건봉사 승려들이 말사를 탐방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한용운은 그 수집의 결과물을 근거로 편찬하였다. 한용운은 당시 수집된 자료의 연대와 문구를 교정하거나 다른 자료와 대조를 통해 사료 비판을 할 충분한 시간과 여유 없이, 단기간 내에 건봉사본말사지의 편찬을 완료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적」에서 제시한 연혁과 달리 한계사는 고려시대 국왕이 원진국사에게 주지로 갈 것을 명하고 『동국이상국집』에 한계사와 관련된 시가 실릴 정도로 사격이 높았으며,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계사지 기와편을 통해 17세기 후반까지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계사는 1600년대 후반까지 확실히 원래의 자리에 유지되고 있었으며 사지 이전과 개명은 신라와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 후기에 벌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¹¹⁾

이제 <백담사고기록>과 조선 후기 설악산 유람록 등을 검토하여 백담사의 화재, 이전, 사찰명 변경 사항을 다시 정리해 보자. 사찰 이전과 사찰 이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 지금의 설악산 심원사는 처음에 한계사가 불에 탄 후 아래 동리 30여리쯤 되는 수치(藪峙)로 이건하고 이름을 운흥사(雲興寺)라 하였다. 때는 경오년 초여름이었다. 당시 승려는 종연(宗演), 광학(廣學), 각동(覺洞), 영희

10) 김광식, 『첫 키스로 만해를 만난다』, 장승, 2004, 143-161쪽.

11) 이를 필자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최병헌은 백담사 연표를 제시하면서 「사적」의 연대를 수정하여 17세기 화재 이후 사찰이 이전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최병헌, 『설악산 百潭寺』, 39-41쪽. 마찬가지로 「사적」의 오류를 지적하고 유람기록과 비교를 통해 사찰 화재와 이전 연대를 제시한 블로그 게시물도 있다(<https://m.blog.naver.com/dvmhong/70101379577>).

(靈熙), 법찰(法察), 설함(雪洽)으로 무리 중에 출중하고 거동이 준수한 이들이었다. 갑신년에 화재를 입어 고개 넘어 60리 되는 곳에 이건하고 절 이름을 심원사(深院寺)라 하였다. 법당, 극락전, 벽운루(碧雲樓), 선승당(禪僧堂), 동상실(東上室) 3방이 있었다. 암자로는 동암(東庵), 원명암(元明庵), 백련암(白蓮庵), 오세암(五歲庵), 봉정암(鳳頂庵)이 있었고 당시 거처하던 승려는 부지기수였지만 동(洞), 훈(薰), 준(俊), 희(熙) 네 명의 상인(上人)이 승려 중에 뛰어났다. 임자년 봄에 산불이 일어나 절이 불타자 아래 동리 30리 떨어진 선귀암(旋龜庵) 위로 이건하고 선귀사(旋龜寺)로 이름하였다. 법당, 극락전, 요사 두 방을 만들었다. 당시 거주승은 의준(儀俊), 해섬(海暹), 취웅(翠雄), 신열(愼悅), 재익(載益), 재화(載和)였다. 계해년 봄에 또 화재를 만나 법당과 요사채가 모두 불타버리자 큰 개울 넘어 영취대(靈鷲臺) 아래로 이건하고 절 이름을 영취사(靈鷲寺)라 하였다. 법당과 요사 두 방을 만들었다. 거주승으로는 선귀사에 있었던 모든 승려들이 있었다. 병자년에 또 불타버리자 계곡 위 20리로 올라가 터를 잡고 정축년에 한 칸 방을 만들고 백담사라 하였다. 위로부터 여섯 번 화재를 당하면서 구름 속 채처럼 모두 흩어지고 남은 것은 재익, 재화, 신열뿐이었다. 임진년 동짓달에 또 불이 나서 거처하던 승려들이 근근이 목숨만 부지한 채 놀라 각 산으로 흩어졌다. 다만 터를 지키는 이는 최봉(最鵬) 한 사람 뿐이었다. 4년 동안 구름과 안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홀로 지키다가 비분강개하며 다시 짓기로 하여 을미년에 대현(大賢), 태수(太守) 등과 마음을 함께 하여 힘을 모아 집을 한 칸 지었으니 심원사(尋源寺)가 이 절이다. 신축년으로 넘어가 법당과 훈향각(薰香閣)을 지었다. 설담(雪潭)대 화상이 영남으로부터 이곳으로 왔고 신열, 재익, 재화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낙성하였다.¹²⁾

12) 頓旭, 『雪嶽山尋源寺史蹟記』(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90-93쪽).

〈2〉 백담이란 이름은 어찌 이름하게 된 것인가. … 7차의 화재로 인한 번고가 있어 이견하여 이름을 바꾼 것이다. 물이 많음으로서 불을 이긴다는 뜻이다. … 땅을 택하여 이름을 바꾸니 간략하게 말하면 운흥, 심원, 영취, 백담이다. 건륭 48년 계묘(1783)에 최봉과 설담 양사가 증건하고 백담이라고 했다.¹³⁾

〈3〉 설악산 백담사사적은 초창이래 지금까지 6번의 연혁이 있다. 첫 번째가 한계사인데 전설에 의하면 낭천현 비금사가 옮겨진 것이다. … 두 번째가 운흥사이다. 한계동 아래 30리이다. 경오에 창건되었으나 갑신년에 화재를 입었다. 세 번째가 심원사이다. 운흥사에서 고개 넘어 60리이다. 임자년에 화재를 입었다. 네 번째가 선귀사이다. 고개 넘어 아래 30리 선귀암 위이다. 계해년에 화재를 입었다. 다섯 번째가 영취사이다. 선귀사에서 큰 개울을 건너 영취봉 아래에 있었다. 병자년에 또 화를 입었다. 여섯 번째가 백담사이다. 영취사에서 위로 20리이다. 병자년에 이견하였는데 임진년에 또 불이 나 증건하여 심원사라고 하였다. 건륭48년 계묘 천명 3년 다시 백담이라고 이름하였다.¹⁴⁾

위 3편의 자료에 나타난 백담사 연혁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1〉의 「심원사사적기」는 신축년 즉 1781년까지 사찰 변화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 화재와 이전 시기, 당시 주석 승려들, 증건된 당우 등을 알 수 있다. 〈2〉의 「백담사증건기」(1920)에는 연혁은 간략히 기술되고 선귀사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783년 다시 사명이 백담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다. 즉 1783년 「심원사사적기」 작

13) 無盡, 「百潭寺重建記」(1920)(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97-100쪽)

14) 栗庵, 「江原道麟蹄郡雪嶽山百潭寺建築上樑文」(1921)(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120-123쪽)

성 이후 같은 해에 설담과 최봉에 의해 백담사로 사명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3> 「강원도인제군설악산백담사건축상량문」(1921)에는 사찰의 화재와 이전 위치에 대해 요약된 정보가 기술되었다.

그렇다면 위의 기록들에 나타난, 화재 발생과 사찰 이전의 연대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한계사의 화재로 사찰을 이전하여 운흥사를 지었다는 경오년은 정확히 몇 년도일까? 강원감사였던 유창(俞瑒, 1614-1690)은 1657년 설악산 일대를 순력하며 기록을 남겼는데 한계사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했다.¹⁵⁾ 또한 앞서 말한 한계사 발굴에서 발견된 ‘한계사 강희 22년 계해(1683)’라고 새겨진 기와편의 존재는 1680년대까지 한계사가 그 위치에 존속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1696년 김창협(金昌協)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5리를 가서 절에 이르러 묵었다. 절이 전에는 폭포 밑에 있었는데 경오년에 불타서 옮겨 세웠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불이 나 임시로 대강 얹어 놓은 상태이고 미처 다시 세우지 못하였다. … 29일 조반을 먹고 남여(藍輿)로 10리를 가자 옥류천이 나타난다. … 10여리를 가니 옛 절터이다.¹⁶⁾

김창협은 가까운 과거로서 경오년을 언급했다. 그리고 1696년 당시 옮겨온 절이 또 불이나 당시 ‘대강 얹어놓은 상태’로 미처 제대로 완성된 사찰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증언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보았을 때 한계사의 화재 후 절을 이전했다는 경오년은 169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의 유산기에 한계사라는 사명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명이 변경

15) 俞瑒, 『關東秋巡錄』(1657), 『秋潭集』 卷之貞

16) 金昌協, 『東征記』(1696), 『農巖集』 권24

되었지만 신라 때부터 유지된 한계사라는 사명을 이전된 사찰의 통칭으로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김창흡이 말한 ‘대강 엮어 놓은’ 사찰은 운흥사로, ‘옛 절터’는 불탄 한계사 자리로 짐작된다. 1차 화재가 발생하여 절터를 이전한 경오년을 1690년으로 가정하고, 「심원사사적기」가 찬술된 건륭 48년은 1783년이므로 백담사 사적의 연대를 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 후기~20세기 초 백담사 화재 발생과 사명(寺名) 변경

간지	추정연대	화재 순서	사찰명	이전 위치	비고
을축	1685년	1차 화재	한계사		「사적」의 간지로 추정
경오	1690년		운흥사	아래 동리 30여리 수치(葺時)	「심원사사적기」
갑신	1704년	2차 화재	운흥사		「심원사사적기」
정해	1707년		심원사	고개 넘어 60리	「사적」의 간지로 추정
임자	1732년	3차 화재	심원사		「심원사사적기」
갑인	1734년		선귀사	아래 동리 30리 선귀암 위	「사적」의 간지로 추정
계해	1743년	4차 화재	선귀사		「심원사사적기」
정묘	1747년		영취사	큰 개울 건너 영취대 아래	「사적」의 간지로 추정
병자	1756년	5차 화재	영취사		「심원사사적기」
정축	1757년		백담사	계곡 위 20리	「심원사사적기」
임진	1772년	6차 화재	백담사		「심원사사적기」
을미	1775년		심원사		「심원사사적기」
계묘	1783년		백담사		「백담사증건기」
을묘	1915년	7차 화재	백담사		「백담사증건기」

「사적」에 따르면 위 표의 을축년 화재 이전에도 한계사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만해는 그 시기를 신문왕 10년(경인), 즉 690년으로 비정했지만 이 역시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화재 후 증건하여 절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터를 옮긴 것은 조선 후기 화재 이후이다. 화재는 1915년의 제7차 화재를 제외하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100

년 동안 6차례나 발생했다. <백담사고기록>에는 화재의 원인이 기술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 시기에 백담사에 화재가 여러 차례 일어났던 것일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는 한반도에서 이상저온, 대기근 등의 기후변화와 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이다.¹⁷⁾ 강원도는 삼림이 많고 산불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 지역이다.¹⁸⁾ 20세기 초의 기록으로 추정한다면 인제는 강원도에서 화전민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¹⁹⁾ 이상저온,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자연발화²⁰⁾ 혹은 기근으로 증가된 화전민의 실화 등으로 설악산에 산불이 자주 일어났고, 백담사는 그러한 산불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을 것이라는 상식적 추론은 가능하다. 사찰의 승려들은 잦은 산불에 맞서 사찰의 위치를 5번이나 옮기고 화재를 막기 위해 물과 관계된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다가 결국에는 대청봉에서 백 개의 못을 거친 곳이라는 ‘백담’이라는 이름을 내걸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백담사 위치가 결정된 것은 1757년경이다. 6차 화재 이후 심원사로 사명 변경이 있었지만 위치는 바뀌지 않고 8년 만에 다시 백담사라

17)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있었던 ‘소빙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異論이 있다. 하지만 경신대기근(1670-1671), 을병대기근(1695-1699)이 발생한 17세기 후반이 이상기후로 인한 기근의 절정기였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김미성, 「조선 현종~숙종 연간 기후 재난의 여파와 유민 대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8, 2020, 103-106쪽; 계승범, 「국내 한국사학계의 환경·기후문제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사학사학보』 46, 2022, 14-31쪽.

18)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에 나타난 조선시대 산불기록의 지역 분포에서 동해안 권역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김동현·강영호·김광일, 「역사문화 고찰을 통한 조선시대 산불특성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5권 4호, 2011, 19-20쪽.

19) 1929년 강원도 군별 화전민 통계에서 인제군의 화전을 겸하고 있는 호는 2,675호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옥한석, 「일제시대 강원도의 역사지리 연구」, 『강원문화연구』 13, 1994, 84쪽.

20) 자연발화는 이탄층(식물이 썩어서 쌓인 토층)의 발화 또는 낙뢰에 의한 발화를 말한다. 김동현·강영호·김광일, 「역사문화 고찰을 통한 조선시대 산불특성 분석」, 11쪽.

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7차례의 사찰명 변천을 거쳐 18세기 후반 현재의 백담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이름을 변경하였지만 절을 새로 창건한 것이 아니라 한계사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조선시대에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찰을 창건하지 못하고 기존 사찰을 중건하는 명목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다.²¹⁾ 한편으로는 법맥으로 연결된 승려들이 사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백담사와 암자의 승려들

이제 백담사의 고기록과 설악산 유람기록 등을 통해 조선 후기 백담사의 변화와 승려들의 면모를 살펴보자.²²⁾

〈표 3〉 조선 후기 백담사 승려와 불사 (출처: 『乾鳳寺及乾鳳寺本末寺誌』(百潭寺古記錄))

추정연대	사찰명 변경	사찰 거주 승려	신축 당우
1690년	한계사 → 운흥사	종연(宗演), 광학(廣學), 각동(覺洞)(=각형(覺炯)) ²³⁾ , 영희(靈熙), 법찰(法察), 설흡(雪洽)	

21) 『經國大典』 「禮典」 〈寺社〉 ‘凡寺社勿新創 唯重修古基者’.

22) 설악산 유람기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번역과 연구가 있다. 김근태·이훈, 「설악산 유기문 원문 및 해제」, 『가원문화연구』 31, 2012; 권혁진·홍하일·최병현·허남욱 편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문자향, 2015; 허남욱, 「조선시대 설악산 유산기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 30, 2015.

23) 「사적」에는 覺洞으로 적혀 있지만 김수증과 박성원의 유산기에는 覺炯으로 표기되었다. 金壽增, 『遊曲淵記』(1698), 『谷雲集』 권4; 朴聖源, 『寒雪錄』(1733), 『臥遊錄』.

1707년	운흥사 → 심원사	동훈(洞薰), 준희(俊熙)	법당, 극락전(極樂殿), 벽운루(碧雲樓), 선승당(禪僧堂), 동상실(東上室) 세 방
1734년	심원사 → 선귀사	의준(儀俊), 해섬(海暹), 취웅(翠雄), 신열(愼悅), 재익(載益), 재화(載和)	법당, 극락전, 요사 두 방
1747년	선귀사 → 영취사	의준, 해섬, 취웅, 신열, 재익, 재화	법당과 요사 두 방
1757년	영취사 → 백담사	재익, 재화, 신열	한 칸 방
1772년		최봉(最鵬)	
1775년	심원사	최봉, 대현(大賢), 태수(太守)	집 한 칸
1781년	심원사	설담(雪潭), 최봉, 신열, 재익, 재화	법당과 훈향각(薰香閣)
1783년	심원사 → 백담사	최봉, 설담	
1882년	백담사		산신당

17세기 말에서 18세기 후반의 시기에 백담사 승려들은 사찰의 화재로 이산을 겪고 사찰 건축을 위한 불사에 힘썼을 것이라 짐작된다. 설악산을 찾은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사찰을 옮겨 법당을 건축 중인 장면을 묘사했다.

좌우의 승방은 새로 지은 판옥이고 법당은 이제 막 짓고 있다. 승려 10여 명이 바쁘게 일을 하느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 동쪽 요사채에서 잤다.²⁴⁾

1691년의 이 기록은 승려들이 요사채를 판옥으로 갖추고 10여 명이 법당을 새로 짓고 있던 모습을 보여준다. <심원사사적기> 등에는 1년 전

24) 金壽增, 『寒溪山記』(1691), 『谷雲集』 권4 (권혁진(외) 번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83쪽).

인 1690년, 한계사에서 이름을 바꾼 운흥사의 창건이 기록되었지만 법당 조차 완공되지 않아 여전히 불사로 설 틈이 없었던 승려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기록에 언급된 종연, 광학, 각동, 영희, 법찰, 설흠 등이 참여하고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운흥사에 주석했다는 광학과 각동(형)의 이름은 1698년 김수증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⁵⁾ 설악산을 유람하는데 이들과 동행했다고 한 것이다. 광학은 1705년 김창흡의 기록에도 보이며²⁶⁾, 1709년 임적(任適, 1685-1728)도 심원사에서 머물렀을 때 광학을 만나보고 ‘광학의 사람 됨이 뛰어나며 말도 들을 만하다.’라고 한 것을 찾을 수 있다.²⁷⁾ 광학은 사대부와 교유할 수준의 학식을 갖춘 승려로서 운흥사, 심원사 이권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33년 박성원(朴聖源, 1697-1767)의 기록에는 노승이 된 각형이 등장한다. 각형은 김창흡과의 친분을 갖고 교유했던 인물로 묘사되었다.²⁸⁾

『심원사사적기』는 운흥사에서 심원사로 이권했을 때 거처하던 승려가 부지기수였으며 당시 법당, 극락전, 벽운루, 선승당, 동상실 3방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때 사찰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갖췄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법당 한 채와 요사 또는 한 칸의 당우로 사찰을 유지할 정도였다. 심원사에서 선귀사로, 선귀사에서 영취사로 영취사에서 백담사로 이권 되면서 승려들이 ‘구름 속의 재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재익, 재화, 신열뿐이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1732년 선귀사로 이권될 당시부터 사찰에 거주하던 승려들이었다. 그러나 1772년 화재로 이마저도 사라지고 최붕 혼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초 어느 정도 사찰의 규모를 갖

25) 金壽增, 「遊曲淵記」(1698), 『谷雲集』 권4.

26) 金昌翁, 「雪嶽日記」(1705), 『三淵集拾遺』 권27.

27) 任適, 「東遊日記」(1709), 『老隱集』 권3.

28) 朴聖源, 「寒雪錄」(1733), 『臥遊錄』.

추었다가 연이은 화재로 18세기 후반 사찰은 존폐의 위기까지 맞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혼자 남은 최봉이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한 끝에 1775년 대현, 태수와 더불어 집 한 칸 정도의 사찰을 세웠다고 했다. 그런데 이때 설담(雪潭)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이전에 주석하던 신열, 재익, 재화가 다시 돌아왔다.

신축년(1781)에는 법당과 훈향각을 세웠다. 설담대화상이 영남에서 이곳으로 오자 신열, 재익, 재화가 또 와서 여기서 함께 낙성을 하였다. 최봉이 그렇게 성공한 것을 화상에게 아뢰니...신계(新溪)는 재익의 호이고 화상의 은전(隱傳)이며 최봉에게 탁발을 전수한 스승은 청일(淸一) 노사이다. 신계의 사형 신열은 90세가 넘었다.²⁹⁾

「심원사사적기」를 쓴 돈육은 1781년 무렵 영남에서 설악으로 온 설담을 ‘설악주인(雪嶽主人)’이라고 썼다. 그 전부터 사찰에 머물렀던 재익, 신열과는 같은 문중임을 밝혔다. 이후 설담은 최봉과 더불어 사명을 백담사로 변경하였다. 백담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담의 부도가 남아 있어 설악산에서 입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설담은 설담 태환(雪潭泰澗)로 용암 체조(龍巖體照, 1713-1779)의 제자로 확인된다.³⁰⁾ 용암은 편양(鞭羊)문중 월저 도안(月渚道安)과 일암 정이(日庵精頤, 1674-1765)의 법통을 이은 고승으로, 설악산에 주석한 석임(釋稔)의 제자였다. 용암은 설악산의 신흥사, 내원암 등에서 수행하며 불사를 일으켰다.³¹⁾ 「심원사사적기」를 쓴 돈육도 ‘용암문인’으로 「심원사사적기」에 기록하였다. 즉 신흥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암 계통의 문도들이 늦어도

29) 頓旭, 「雪嶽山尋源寺史蹟記」.

30) 影潭性默, 「行狀」, 『龍巖堂遺稿』.

31) 影潭性默, 「行狀」; 龍巖, 「雪嶽山神興寺極樂殿丹腹記」, 『龍巖堂遺稿』.

1732년 이전 백담사에 머물렀고 용암의 제자들이 18세기 후반 백담사의 이견과 중건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들에 의해 저술된 사적기의 제목이 「설악산심원사사적기」인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백담사 지역을 가리켰던 ‘한계산’이란 지명 대신 ‘설악산’이란 지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작된 지도, 지리지, 유산기에는 백담사가 위치한 지역을 ‘한계산’으로 지칭한 사례가 많았다. 설악산의 지명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쳤는데 한 때 한계산과 더불어 울산바위도 천후산(天吼山)이라는 별도의 지명이 있었다. 설악산이라는 대표 지명과 지역별로 구별된 산 이름이 혼용되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설악산이라는 대표 지명으로 굳어졌다.³²⁾ 「설악산심원사사적기」는 지금의 외설악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인물 계통이 ‘한계산’ 영역으로 넘어와 동일한 문도 집단을 이루면서 18세기 후반 ‘설악산’이란 대표 지명을 내걸었던 기록이 아닐까 한다.

한편, 조선 후기 백담사의 산내 암자에 주석하며 불사를 이어간 당대 고승들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17세기에 활약한 환적 의천(幻寂義天, 1603-1690)이다. 의천은 편양문파의 승려로서 전국의 명산을 수행처로 삼고 수많은 불사를 일으켰던 고승이다. 의천이 설악산에 주석한 것은 1657년, 1664년 두 차례였다.³³⁾ 1657년 유창은 설악산에 올랐다가 의천을 마주치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상승암(上乘庵)에 이르니 암자는 꼭대기에 있어 사람의 발길이 드물다. 늙은 중 탁린의 나이는 70여세쯤 되고, 탁린의 제자인 의천은 나이가 55세인데 모두 일찍이 곡식을 끊고 도를 연마한다. 묘향산에서 이 암자로 와서 사는데, 의천은 글에 능하고 경전을 이해하며, 두 눈은 별처럼 빛나고 앙상한 몸은 학

32) 최원석, 「조선시대 설악산 자연지명의 역사지리적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1권 1호, 2009, 127-142쪽 참조.

33) 楓溪明察, 「幻寂堂大師行狀」, 『楓溪集』 下.

과 같다. 오랫동안 그와 불교에 대해 이야기 했다.³⁴⁾

1657년 의천은 노승 탁린과 함께³⁵⁾ 상승암에서 수행 중이었다. 의천은 출가이후 화식을 하지 않고 술잎만 먹는 벽곡(辟穀) 수행으로 유명했다.³⁶⁾ 유창은 의천의 수행과 학식, 용모에 큰 감화를 받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의천은 62세인 1664년에 설악산을 다시 찾았다. 이때 봉정암 옛 터에 판옥을 짓고 수행하면서 봉정암을 증수했다.³⁷⁾

18세기 승려로는 설정(雪淨)을 주목할 수 있다. 설정은 영시암, 봉정암, 오세암을 증진한 승려로서 백담사 주변에서 중요한 활약을 한 인물이다. 설정의 이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영시암 삼연선생이 떠나고 암자는 무너지고 터만 남았는데 20여년이 지난 후 산승 설정선사가 옛터를 돌아보고 슬퍼 한탄하다가 옛 것을 털어내고 두루 경대부와 관동백, 그리고 선비나 스님, 유불을 숭상하는 공덕자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증수하는 한편 특별히 자비성상을 봉안하고 20여년을 향을 피워 봉양하니 사원은 평운을 되찾았다.³⁸⁾

(2) 오세암 주지 설정은 당초 남쪽에서 와서 암자(봉정암)를 짓고 탕화를 봉안했으며 횡각(橫閣)을 세웠는데 전보다 넓은 것이었으니 때는 무진년 봄이니 지금부터 30년 전이다.³⁹⁾

34) 俞瑒, 「關東秋巡錄」, 『秋潭集』(권혁진(외) 번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62쪽).

35) 탁린은 의천이 출가할 때 은사인 塵靜堂 琢璘을 말한다.

36) 宋光淵, 「五臺山記」(1676), 『泛虛亭集』 권7.

37) 戒心, 「鳳頂庵重修記」(1781).

38) 楓嶽過人, 「永矢庵改金佛事記」(1760)(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154-155쪽).

39) 戒心, 「鳳頂庵重修記」(1781).

〈3〉 순창산인 설정이 불탱을 봉안하고 탑대에 참배하며 누각에 주련을 다니
 암자의 모습이 더욱 새로워졌다. 건륭13년 무진년 추 7월이었다.⁴⁰⁾

〈4〉 오세암에 이르렀다. … 옛날 매월당의 발자취가 있다. … 설정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용모가 준수하다. 그와 함께 말해보니 성의껏 말하는 것이 들
 어줄 만하다.⁴¹⁾

위의 기록들은 설정의 인물됨과 활약을 보여준다. 〈3〉의 자료로는 설
 정이 호남 순창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의 1753년 기록에 젊은
 승려로 묘사된 것으로 보면 18세기 초 출생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터만
 남은 영시암을 증건할 때 유불을 막론하여 지방관에서 승려에 이르기까지
 시주 받은 것이나 오세암을 찾은 이들에게 성의껏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학식과 언변, 불사를 성취하기 위한 원력을 지녔던 인물임을 짐작
 할 수 있다. 〈1〉의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설정은 김창흡이 영시암을 떠난
 1714년 이후 당우가 무너지고 터만 남은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
 사람들에게 불사를 권하여 영시암을 중수하고 특별히 ‘자비성상’을 봉안했
 으며, 그 후로도 20여 년 영시암을 돌보았다. 또한 〈2〉, 〈3〉의 기록에서는
 설정이 환적의천과 등운(騰雲)에 이어 봉정암 중수에 힘을 기울여 봉정암
 에 불탱을 봉안하고 전각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설정이 봉정암에 불사를
 했다는 연대는 1748년이다. 이렇게 설정은 백담사의 대표적 산내 암자인
 영시암, 봉정암, 오세암을 18세기 초중반 차례로 중수하고 일대를 일신시
 켜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는 남호 영기(南湖永奇, 1820-1872)가 해인사 대장경

40) 작자미상, 『江原道麟蹄郡雪嶽山鳳頂庵七創事蹟記』(1870).

41) 李福源, 『雪嶽往還日記』(1753), 『雙溪遺稿』 권10(권혁진(외) 번역, 『조선선비, 설악
 에 들다』, 242쪽).

을 인출하여 1부는 오대산에, 1부는 설악산에 봉안하였다.⁴²⁾ 영기는 보개산 지장암에서 자신의 피를 섞어 아미타경을 사경(寫經)한 일화로 알려진 고승으로 봉은사에서 화엄경을 간행하고 판전(板殿)을 지어 봉안한 바 있었다.⁴³⁾ 영기는 1865년 인출된 대장경을 오세암에 봉안했다. 당시 영기가 오세암에 대장경 봉안한 실제 모습은 다음의 시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영이(靈異)한 판조를 설악 절간에 완전하게 권질로 갈무리해 두었네
50여 상자는 방 한 칸을 채우고 7천편의 삼장(三藏)으로 넉넉하니⁴⁴⁾

이 시에 따르면 대장경을 인출하여 상자 50개에 나누어 담아 오세암의 방 한 칸에 비장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기는 설악산을 봉정암의 불보(진신사리)와 더불어 법보(대장경)를 보존할 성지로 여기고 특별히 오세암에서 경전 불사를 완수했다.

이렇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백담사에는 연이은 화재가 발생했고 이견과 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편양 문중의 용암 문도들이 중심이 되어 재건을 주도했으며 산내 암자들에는 조선 후기 여러 고승들이 주석하며 불사를 이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남호 영기가 대장경을 인출하여 봉안 장소로 오대산과 설악산을 선택한 것은 오대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불보)가 봉안된 적멸보궁이 있고 설악산에 진신사리가 모셔진 봉정암이 있기 때문이었다. 無盡, 「五歲庵事蹟」.

43) 남호 영기의 행적과 불사는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金泰洽, 「南湖大師의 律行과 그 事業」, 『佛敎』 59호, 1929.

44) 李裕元, 「大藏經」, 『嘉梧藁略』 '板雕靈異遙伽嶽 卷帙完全度正陽 五十函成充一室 七千編富演三藏'(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154-155쪽).

IV. 설악산의 명산화와 백담사의 위상

조선 후기에는 산수 유람이 성행하였고 명산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문예가 생산되었다. 산에 대한 선호는 인문적·역사적 가치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특히 18세기 지리산과 청량산에 대한 유람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식(曹植, 1501-1572), 이황(李滉, 1502-1571) 등과 같은 유현(儒賢)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산이라면 그들과 연고 있는 인물들의 유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후대 문인들의 유람은 문중과 학파, 사대부 집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의식적 행위였고 명산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조선 후기 백담사의 위상은 설악산의 명산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유산록이 풍악산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지만 설악산에 관한 것은 조금도 볼 수 없다. 고매한 승려가 머무는 곳과 세상을 떠난 선비들의 은거 장소가 숨겨져서 세상에 칭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⁴⁶⁾

〈2〉 우리나라의 산수는 천하에서 으뜸이며 관동이 제일이다. 한계산과 설악산은 인제와 양양 사이에 있는데, 더욱 뛰어난 경치이다. 그러나 깊숙하기 때문에 유람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 금강산만 못

45) 최원석은 조선 중후기의 유람문화가 한국 명산문화의 질적 변화를 일으킨 계기로 보았다. '유학자들의 명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名儒의 이미지를 명산과 결합시키며 유산의 경험 및 정보를 통해 그들 문화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문화지리학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문화적 형식 및 태도는 명산을 인간화, 장소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조선시대 명산과 명산문화: 정치사회 지배층의 명산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1호, 2009, 218쪽.

46) 金夢華, 「遊雪嶽錄」(1787), 『七巖文集』.

하니 사람에 비유하자면 진실로 덕을 숨긴 군자이다. 근세에 남겨진 자취는 청한자(淸寒子)와 백연(白淵) 몇 분뿐이다.⁴⁷⁾

〈1〉, 〈2〉의 인용문에서는 18세기 사대부들이 생각했던 설악산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설악산은 조선 후기 유람객이 몰려 간 금강산과 대비되며, 뛰어난 경치를 지녔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산, 속세를 멀리한 선비들의 은거 장소로 운위되고 ‘덕을 숨긴 군자’로 비유되었다. 〈2〉에서 언급된 청한자와 백연은 조선시대 대표적 은사의 명성을 누렸던 김시습(金時習, 1435-1493)과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을 말한다. 이들에 의해 조선 후기 설악산의 명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은 조숙한 천재이면서 걸림 없는 방랑자, 고독을 자처하며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절의의 화신으로 표상되었던 인물이다. 김시습의 행적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남아 있고 김시습 생애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이 있었지만⁴⁸⁾ 김시습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로서 고증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5세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아 세종으로부터 신동(神童)임을 인정받고 ‘오세(五歲)’라는 별호를 얻었다는 것이다.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세속을 떠나 승려의 모습으로 전국을 방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사적」은 1456년 ‘매월 김시습이 관음암에 와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다.’라며 김시습이 출가한 곳을 설악산 관음암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김시습이 관음암에서 처음 삭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김시습이 설악산에 머문 것은 생애 후반기인 148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오래 머문 곳은 양양 쪽 설악산인 것으로 보인다.⁴⁹⁾ 물론 20대

47) 朴聖源, 『寒雪錄』(1733), 『臥遊錄』(권혁진(외) 번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175쪽).

48) 南孝溫의 「師友名行錄」, 李珥의 「金時習傳」, 許穆의 「淸士列傳」 등을 말한다.

49) 김시습이 머물던 곳은 현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검달동으로 보고 있다. 심경호,

에 관동을 유람한 적도 있고 승려 행색을 하고 전국을 누볐으며 이후 한계산에 거주했다는 기록도 있어⁵⁰⁾ 김시습이 관음암에 일정 기간 머문 것은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행적을 근거로 후대 설악산 승려들이 관음암에서 김시습이 출가했다는 설을 믿고 전승하였을 것이다.

김시습의 행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회자되고 칭송되었다. 호란(胡亂) 이후 명분론과 절의에 입각해 처신한 사육신, 생육신의 행적이 사족사회 전반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숙종, 영조, 정조대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단종 충신의 복권과 추송 운동을 이끄는 가운데⁵¹⁾ 김시습은 상징적 인물로 존송되었다.⁵²⁾ 영월 창절사(彰節祠), 홍산 청일사(淸逸祠), 수락산 청절사(淸節祠) 등 김시습의 행적이 알려진 각지에 사당이 건립되고 사액되었다. 김시습의 행적 평가는 ‘행유적불(行儒迹佛)’, 즉 유학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불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이(李珥, 1536-1584)의 논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⁵³⁾ 시간이 흐를수록 김시습의 불자로서의 면모는 배제된 채 유자로서의 모습이 부각되었다.⁵⁴⁾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김시습 초상화의 개작 과정이다. 무량사(無量寺)에 남아있던 승려 형상의 김시습 자화상이 여러 차례 개모 과정을 거쳐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537-551쪽.

50) 李珥, 「金時習傳」, 『栗谷集』 권14. ‘강릉과 양양의 경계에서 노는 것을 즐기하며 설악산, 한계산, 청평산 등에 많이 거주했다.(喜遊江陵襄陽之境 多住雪嶽寒溪淸平等山)

51) 숙종대에 단종의 복위와 육신의 복권이 이루어졌으며 영조대에는 단종 관련 사적 정비와 충신들에 대한 현창이, 정조대에는 장릉에 配食壇을 건립하는 등 현창사업을 확대, 발전시켰다.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사학연구』 98, 2010.

52) 김영두, 「세조 정권 비판의 상징적 인물로 김시습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연구」, 『사학연구』 148, 2022, 54-57쪽.

53) 李珥, 「金時習傳」, 『栗谷集』 권14.

54) 강창규, 「매월당 김시습에 대한 기록, 그 사실과 기억의 변증」, 『동양한문학연구』 51, 2018, 31-34쪽.

유자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각지의 김시습 사당에 안치되었던 것이다.⁵⁵⁾

김시습이 머물렀다는 백담사의 산내 암자 관음암은 18세기 중반 설정에 의해 증건되고 오세암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시습에 대한 추승 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에 설정이라는 승려는 그 흐름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당시의 기록들은 오세암이라는 이름이 김시습의 별호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혔고 오세암에 봉안된 김시습의 초상에 대한 증언을 남겼다.

(1) 호남 승려 설정이 재목을 모아다 암자를 짓는데 토목공사를 겨우 끝내놓고 한창 서까래를 설치하고 색칠을 시작하고 있다. 암자의 이름은 오세동자의 뜻에서 취했다고 한다. 설정이 권선권(勸善券)을 올리며 말하길, “여기에 온 태수들 중 부조하지 않았던 분이 없습니다. 공만 뜻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웃으며 “그대가 매월당에게 의탁함이 막중한테도 도리어 본당에다가 관음보살을 앉히고 매월당의 초상은 곁방에 두었으니 손님과 주인이 바뀐 꼴이네. 그리고도 그대가 나에게 관음보살의 영당을 짓는 일을 도우라고 시키는 것인가?” 하였다. 설정이 말하길, “천하의 지존 중에 부처보다 큰 것은 없으니 승이 된 자로서 반걸음조차도 소홀히 하거나 망각할 수 없습니다. 매월당의 맑은 절개는 진실로 존경할 만하나 집을 지어 부처를 주로 삼지 않으면 승려들 중에 누가 둘 하나를 지고 나무 하나를 끌겠습니까? 또한 소승이 스스로 관음을 높이고 군(君)으로 하여금 스스로 매월당에게 부조하게 하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한다.⁵⁶⁾

55) 무량사에는 김시습의 자화상 ‘老少二像’이 있었고 후대 그 초상화가 너무 탈색되자 1650년경 李潐에 의해 모사본이 그려졌다. 이때까지 승복과 삭발을 한 승려모습의 초상이었다. 그 후 승유가 혼합된 개모본(복색은 승복이나 공수를 하고 삭발과 염주가 사라진)이 그려졌고 점차 복색에 색깔을 입힌 유학자의 모습으로 다시 그려졌다. 양승민, 「매월당 김시습 초상화의 개모 과정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38, 2013 참조.

56) 李福源, 『雪嶽往還日記』(1753), 『雙溪遺稿』 권10(권혁진(외) 번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242-243쪽).

〈2〉 3, 4리를 가서 오세암으로 들어갔다. 오세암은 매월당 김공에게서 유래한다. 암자엔 매월당의 화상(畫像) 두 폭을 진열했다. 하나는 유학자의 초상이고 하나는 승려의 초상인데 수염이 있다. 나는 손을 씻고 옷을 단정히 하고 유학자의 초상에 참배했다. 우리러보니 우뚝한 풍모와 기운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높은 이마와 굳센 광대뼈 힘찬 눈썹과 빛나는 눈, 오뚝한 코와 무성한 수염은 참으로 영웅호걸의 외모이다. 그러나 한(恨)을 깊이 생각하여 어렵פות이 엉켜 모여 있는 것이 오랜 세월에도 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종이 왕위를 양보하자 육신(六臣)은 임금을 따라 죽었다. 매월당은 비록 머리를 깎고 세상을 피해 궁벽한 산에서 늙어갔으나 아직도 빛남이 있으니, 드러나는 것을 깊이 숨기고 헤아리면서 채미일절(采薇一節)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치려고 하지 않아서인가.⁵⁷⁾

〈3〉 25년 전에 승려 설정이 설악산에 올라 선생의 오세선원(五歲禪院)에 대해 물으니 없어진 지 백 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그 옛터에 다시 세워 그 뒤 3년 10월에 절이 이루어지니 선생의 화상을 구해서 간직해 두고는 나에게 이를 기록해 달라 청하였다. 내가 이미 선생의 풍도를 사모하고 있던 터라 사양하지 않고 기문을 써 주면서, 또 세속에서 선생을 의심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선생을 위해 이와 같이 변론한다.⁵⁸⁾

〈4〉 내가 그 작은 암자 이름의 뜻을 묻자 대답하기를 “이곳은 매월당 김선생이 지내던 암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부터 선생을 오세신동이라 하였지요.” 하면서 암자에 화상 두 점이 봉안되어 있다고 했다. … 나는 절을 올렸는데 하나는 속상(俗像)이고 하나는 법상(法像)이었다. 화상은 어찌하

57) 安錫儔, 「後雪嶽山記」(1760), 『靑橋集』(권혁진(외) 번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252쪽).

58) 黃景源, 「麟蹄縣五歲禪院記」, 『江漢集』 권9(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129쪽).

여 좁은 곳에 끼어있으며, 그을름에 그슬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나? 암자를 지키고 있는 것은 노승 하나뿐이라 머지않아 폐허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⁵⁹⁾

〈1〉은 1753년의 기록으로 오세암이 증건 공사 끝에 완성되어 가던 상황을 보여준다. 〈3〉에서는 그 증건 공사가 3년 10개월이 걸렸고 설정이 외부에서 김시습의 초상을 구해와 오세암에 봉안하고 황경원에게 기문을 청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정이 오세암의 증건에 착수한 시기를 1750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설정이 오세암에 김시습의 불자 모습 초상과 유학자 모습을 담은 진영, 두 가지 종류의 초상을 함께 봉안했다는 점이다. 당시 김시습 추송 운동의 영향으로 김시습의 초상화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이후 무량사에 조차 유학자의 모습을 한 초상이 안치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초상도 개모를 거친 유복본(儒服本)이다. 설정은 유행하던 유복본과 더불어, 당시 공식적으로는 거의 자취를 감춘, 아마도 승복본(僧服本)인 무량사 원본의 이모본을 구해서 함께 봉안한 것 같다. 이 점은 현장을 방문한 유학자들에게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을 남긴 유학자들은 암자명의 유래를 듣거나 김시습의 초상을 마주하며 〈2〉의 안석경처럼 감격해하면서도 불당에는 관음보살을 안치하고 결방에 김시습 초상을 안치한 점이나, 승려의 모습을 한 초상을 함께 봉안한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오세암을 찾은 유학자들은 한결같이 유학자 형상을 한 김시습 초상에만 참배함으로서 승려로서의 행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에게 승려 모습의 김시습은 어디까지나 ‘거짓’으로 미친 척 승려를 가장했을 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전반으

59) 李松枯, 「麟蹄縣記蹟吟詠騰書」(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108-109쪽).

로 추정되는 <4>의 기록은 그때까지 두 초상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유람자가 김시습 초상이 그을음으로 훼손된 책임을 승려에게 묻고 그나마 폐허가 될까봐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악산에서 김시습의 자취를 되새기는 감격과 승려상 초상에 대한 당혹감이 교차한 유학자들의 기록 이면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관음암을 오세암으로 개명하고 김시습의 두 종류 초상을 봉안한 설정의 대담한 전략이다.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설정은, 김시습 초상을 본당의 불상보다 중시하지 않았다고 꾸짖는 양구현감 이복원(李福源, 1719-1792)에게 자신과 같은 승려에게는 불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변하면서 관음상을 본당에 안치한 것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시주를 권하며 당당하게 대응하였다. 설정은 관음암에 남아있던 김시습 전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세암으로 개명하고⁶⁰⁾ 유학자 초상과 함께 승려 모습의 김시습 초상을 함께 봉안했다. 이렇게 설정은 오세암에서 불교계 내외에 두루 권선하여 불사를 크게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불자로서 김시습의 행적을 세상에 드러내 고자 한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은일(隱逸)의 상징적 인물이 설악산에 머물렀다. 조선 후기 문단과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삼연(三淵) 김창흡이다. 김창흡이 설악산에 머문 10년(1705-1714) 동안 그의 삶과 학문 세계는 완숙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⁶¹⁾ 김창흡이 설악산을 처음 유람한 것은 23세 때였다. 이후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부친 김수항(金壽恒, 1629-

60) 그런데 이후 사찰 기록에는 오세암의 명명에 대해 '과연 5세 조사가 있었던 곳인지, 매월당의 호에서 취하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으며(鳴九, 「五歲庵經閣重建記」, 1889) 1920년대 기록은 고려시대 설정(雪頂)조사가 데려온 5세 아이가 관음보살의 보살핌을 받고 견성한 전설을 적고 있다.(無盡, 「五歲庵事蹟」, 1920)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전설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1) 이승수, 「三淵 金昌翕 研究」,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142-149쪽.

1689)이 유배 후 사사되자 포천 백운산에서 은거를 시작했다. 1691년 백부 김수증(金壽增, 1624-1701)과 설악산을 유람하였고 1692년 8월 설악산 수렴동 계곡인 곡백연으로 들어가 한동안 머물다가 1698년 곡백연 입구에 판자집 형태의 임시 거처인 백연정사(白淵精舍)를 지었다. 1705년 모친상을 마치고 마침내 평생 은거할 뜻을 갖고 설악산에 들어왔다. 설악산 은거라는 오랜 숙원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⁶²⁾ 김창흡이 곡백연을 은거지로 선택한 배경에는 김시습이 머물던 곳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노론계의 김시습에 대한 경모심은 각별하여 백부 김수증 역시 곡운에서 김시습의 자취를 찾고 그의 초상을 모사하기도 했다.⁶³⁾ 김창흡 가문에서 김시습의 은일은 은거생활의 전범으로서 이해되었다. 김창흡은 1707년 벽운정사(碧雲精舍)를 지었으나 화재로 인해 한동안 심원사에 거처했다. 이후 수렴동 계곡에서 더 깊이 들어가 1709년 영시암(永矢庵)을 완성했다.

수렴동 위 지점 흙 둔덕에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해가 지는 시간에 완성할 요량으로 곧 매미 허물 같이 영시암을 지었다. ... 나는 스스로 이 산의 주인이라고 한다. 무릇 백연(百淵)의 원류와 더불어 크고 작은 설령(雪嶺)이 있는데 모두가 이 안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오가기 때문이다. 봉정(鳳頂)이나 쌍폭을 다니다가 곧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을 당하면 중간에서 자고 해가 저물어 고생이 되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⁶⁴⁾

62) 장종미는 김창흡이 그 이전 삼부연, 현성, 벽계 등지 은거했던 것은 가문의 처지나 정국과의 타협 속에서 이루어진 반면, 설악산 은거는 비로소 김창흡의 숙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장종미, 「정치사적 맥락에서 본 김창흡 산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58쪽.

63) 김수증은 곡운구곡 중 제3곡인 神女峽을 김시습이 은거했던 곳으로 여겼다. 金壽增, 「谷雲記」, 『谷雲集』 권4.

‘영시(永矢)’는 『시경(詩經)』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홀로 오래도록 은둔하여 머물 다짐을 한다는 뜻이다.⁶⁵⁾ 김창흡은 설악산의 주인을 자처하며 설악에 평생 은거할 뜻으로 영시암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위치는 봉정과 쌍폭과 같은 설악산의 절경을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곳이었다.

설악산 깊은 계곡 속에 안거한 김창흡은 역(易)을 깊이 연구했으며⁶⁶⁾ 승려들과 교류하며 불교적 세계에 침잠하고 참선 수행에도 힘을 기울였다.⁶⁷⁾ 또한 설악산을 근거지로 하면서도 관서, 영남, 금강산, 관동 등 전국의 산수에 대한 유람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그러한 가운데 「춘흥잡영(春興雜詠)」, 「갈역잡역(葛驛雜詠)」, 「갈영잡영무술(葛驛雜詠戊戌)」 등 문학사에 길이 남을 방대한 분량의 시를 창작했다.⁶⁸⁾ 그런데 설악산의 은거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1714년 함께 생활하던 거사 최춘금(崔春金)이 호환(虎患)으로 생명을 잃었던 것이다.⁶⁹⁾ 이에 설악산 은거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양평, 곡운 등지로 은거지를 옮기다가 1722년 생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설악산은 김창흡 문학의 산실이자 삼연으로 대표되

64) 金昌翁, 「遊鳳頂記」(1711), 『三淵集』 권23 (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75쪽).

65) 『詩經』 「衛風」 “은자의 오두막 언덕에 있으니 대인이 한가로이 머물도다. 홀로 자고 깨었다가 다시 누웠으나 이 즐거움 길이 남에게 알리지 않으리라 맹세하노라.(考槃在陸, 碩人之軸. 獨寐寤宿, 永矢弗告)

66) 『景宗實錄』 경종2년 2월 21일 병자 <世弟侍講院進善 金昌翁卒記> “晩入雪嶽山卜居讀《易》, 自言 “若程, 朱見到處, 則亦能見到” 云’.

67) 김창흡은 부친의 사사 이후 좌절과 혼돈 속에 심리적 의지처로 불교에 귀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호선은 黃胤錫의 『益齋亂藁』에서 볼 수 있듯이 삼연이 일생동안 산을 유력하며 면벽과 참선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삼연은 『화엄경』, 『능가경』, 『선문염송』 등 불교 전적을 즐겨 읽었고 삼연의 시에서 보이는 공관적 세계관은 불교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호선, 「김창흡의 불교적 사유와 불교시」, 『한국인물사연구』 2, 2004, 88-91쪽.

68) 이경수, 「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 『강원문화연구』 26, 2007, 19-23쪽.

69) 金昌翁, 「祭居士崔春金文」, 『三淵集』 권32.

는 고결한 은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여겨졌다.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은 이후 그의 문도들이 중심이 되어 설악산을 찾아 기유문학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창흡의 은거 이후 설악산 관련 시문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⁷⁰⁾ 이렇게 설악산을 찾은 이들에게 삼연의 자취는 반드시 상기되어야 하는 주제였다. 거의 모든 설악산 유산기에는 김창흡과 영시암이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시가 창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말을 버리고 30리를 가노라니 심원사가 있고 또 5리를 가니 비로소 삼연 선생의 정사가 있었다. 대개 절은 유절(幽絶)한 곳에 있는데 정사는 절 보다도 5리나 더 깊으니 그 유절함을 알만하다. 정사는 모두 열 두 칸이며, 가운데 하나는 큰 반이라고 하는데, 방 가운데도 중방(重房)을 만들어 쉬는 곳이 되었고, 방 북쪽에 작은 다락 한 칸을 지어 등망(登望) 유상(遊賞)하는 곳이 되었다. … 산수가 기이하고 절묘하여 볼 만한 것은 정사가 제일이라고 하겠다.⁷¹⁾

삼연 응의 기이한 일 전하여 오는 산중의 옛 일들이 흥미롭고
깊은 밤 수렴동 비 개인 가을 산봉 높기만 하네
북쪽의 창가에는 구름이 춤을 춰도 지난날의 자취는 눈 속에 가려
고요하고 쓸쓸해도 예약에 맞춰 노래하는 봄날은 오리⁷²⁾

이렇게 영시암은 김창흡의 정사로서 운위되며 설악산 유람자들이 반드시 들러서 삼연의 행적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고 삼연의 시에 영향 받

70) 이경수,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설악산의 심상(心象)」, 『한국사기연구』 32, 2012, 69쪽.

71) 任適, 「遊三淵精舍記」, 『老隱集』 권2 (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125쪽).

72) 李麟祥, 「永矢庵遺墟一」, 『凌壺集』 권2 '淵老傳奇事山居趣彌濃 夜深水簾洞秋霽高明峰 便向雲邊舞時迷雪裏蹤 寂寥禮樂志歌曲自春容' (최병헌 번역, 『설악산 百潭寺』, 167쪽).

은 새로운 시의 창작 무대가 되었다. 이후 허물어진 영시암터에 1749년 인제현감 이광구(李廣矩, 1682-?)와 강원도 관찰사 홍봉조가 삼연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⁷³⁾ 그리고 설정은 ‘유불을 숭앙하는 공덕자들’의 시주를 받아 영시암을 중건했다. 설악산 승려가 머물며 관리하는, 백담사 산내 암자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19세기에 설악산을 찾은 김금원(金錦園)은 ‘옛날에 김삼연의 영시암과 김청한(김시습)의 오세암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 없지만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라고 하여⁷⁴⁾ 설악산에서 김시습과 김창흡이 차지하는 위상을 되새겼다. 이렇게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세조대의 사육신, 생육신에 대한 추승 사업이 이어지면서 유학자들은 설악산 오세암을 찾아 김시습을 세상에 맞선 절의의 화신으로, 설악산을 성리학적 이념을 수호한 은둔지사의 산으로 인식했다. 또한 영시암에서는 경학, 문예, 절의의 측면에서 선비의 모범으로 추앙받던 김창흡을 떠올렸다. 설악산은 김시습과 김창흡의 행적을 추념하는 공간, 은둔지사의 공간으로 조선 사회에 인식되며 명산의 표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설악산의 명산화 과정에서 백담사는 그에 따른 위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점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백담사원당상량문(百潭寺願堂上樑文)」이다.

충신이 불문에 자취를 숨겼으니 아직도 오세암의 옛 이름이 전해지고, 처사는 지팡이와 나막신에 향기를 남겼으니 이곳이 바로 삼연옹(三淵翁)이 살던 곳이라 하네. 오직 백담사만이 그 사이에 홀로 자리 잡아서 일만 개의 봉우리

73) 洪鳳祚, 「三淵先生永矢菴遺墟碑」(1749).

74) 金錦園, 「湖東西洛記」(1830).

가 그 밖을 에워싸네. … 나의 백부께서는 북궐(北闕)의 임명을 받고 깃발을 세우고 동쪽으로 오셨네. 변방 읍에 좀 벌레처럼 엎드린 간사한 자들 찾아내고, 말고삐를 쥐고 맑은 뜻을 지닌 이들을 고무하셨네. 또 거적자리 지붕 밑에서 물고기가 뼈끔거리는 고달픔을 생각하시고, 팔배나무 밑에 쉬시며 어질고 은혜로운 교화를 펼치셨네. 산골 백성과 어촌 장정, 편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골짜기의 농부와 관문의 장사꾼, 모두 그 은혜 아래로 귀의하였네. 옥 부절을 가지고 여러 주를 순시할 때,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 이 절에 머무셨네. 승려들의 가난을 민망해 하셨으니, 아,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불전이 퇴락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명산에 이제부터 주인이 없어질까 걱정하셨네. 이에 주위를 둘러보며 한탄하시다가 묵묵히 [집 지을 재목을] 옮겨와 보시하셨네. … 설악의 승려들이 힘을 바치는 모습이 아버의 부름에 대답 없이 곧장 일어나는 것 같았고, 화려하게 변한 절의 모습은 완연히 부처의 공이 영험함을 발한 듯했네. 계곡과 산은 찬란한 빛을 더했으니 길이 좋은 경치에 보탬이 될 것이고, 발우는 모셔질 곳을 얻었으니, 아, 불도들에겐 잊혀지지 않으리. 이에 중생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고 하늘은 복을 내렸네. …아미타불을 외며 복을 비니 자비로운 배가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자사(刺史)를 노래하며 덕을 기리니 복전(福田)에 거듭 풍년이 들리. 이 뜻을 생각하며 이러한 이름 지었으니 끊임없이 이어지며 두터운 복을 불러들이리....⁷⁵⁾

이 글의 작가는 홍길주(洪吉周, 1786-1841)다. 홍길주는 조선 후기 경화세족(京華世族) 출신으로 19세기 대문장가로 알려진 인물이다.⁷⁶⁾ 조선

75) 홍길주, 『雪嶽百潭寺願堂上梁文』, 『峴首甲稿』 권5(박무영의 역주, 『현수갑고』 下, 태학사, 2006, 112-116쪽).

76) 홍길주는 과거를 포기하고 문장으로 입신할 것을 결심하고 방대한 글을 남겼다. 당대에도 그의 글은 '기발한 발상과 절묘한 구성', '근고 몇 백년 사이에 있지 않았던 문장' 등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홍길주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이홍식, 『홍길주의 꿈, 상상 그리고 문학』, 태학사, 2009, 17-27쪽.

후기를 대표하는 경학자이자 문장가인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그의 형이며, 순조의 여동생 숙선옹주(淑善翁主, 1793-1836)의 남편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 1793-1865)가 그의 아우다. 이들 형제에게서 19세기 사상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불교 전적을 자유롭게 접하고 글에서 불교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불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⁷⁷⁾ 홍길주가 백담사 원당 상량문을 작성한 연도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홍길주는 불과 20대의 나이였다.⁷⁸⁾ 홍길주의 글에서 말한 백담사 원당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1915년 화재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상량문 내용에는 강원도 관찰사였던 백부 홍의모(洪義謨, 1743-1811)의 치적이 포함되었다. 홍의모는 홍길주의 부친 홍인모의 형이었다.⁷⁹⁾ 홍의모는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된 후 재직기간은 짧았지만 도내 백성을 위해 환곡을 더 분급하고, 홍수, 흉작을 겪은 도민에게 홀전을 지급하거나 군역과 신역을 면제해줄길 호소하는 장계를 여러 차례 조정에 올렸다.⁸⁰⁾ 이러한 선정은 백성들에게 큰 감화를 준 것으로 상량문에 표현되었다. 그렇다면 이 글은 홍의모가 강원도 관찰사로 활동한 시기로부터 홍길주가 서른 살이 된 시점, 즉 1809년에서 1816년 사이에 쓰인 것이다. 홍의모는

77) 조성산, 「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상사학』 13, 1999; 장진엽, 「洪顯周 詩 세계의 一端: 불교적 사유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42, 2014, 42권 42호 참조.

78) 이 글이 실린 『현수갑고』가 홍길주가 서른 이전에 쓴 글을 모은 문집이기 때문이다. 홍길주, 『峴首甲稿自序』, 『峴首甲稿』(박무영의 역주, 『현수갑고』 上, 태학사, 2006, 29-30쪽).

79) 홍의모는 1773년에 선공감 가감역(繕工監假監役)에 제수되면서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이후 정조대에 文孝世子 魂宮都監의 郎廳을 지냈고 승지를 거쳐 1809년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80) 『純祖實錄』 순조 10년 경오(1810) 3월 8일(임술); 순조 10년 경오(1810) 8월 10일(임진); 순조 11년 신미(1811) 3월 27일(을해); 순조 11년 신미(1811) 6월 4일(경술).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 중 1811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홍길주는 1810년 금강산을 유람하고 강원도 관찰사의 관영에서 백부를 만난 적이 있었다.⁸¹⁾ 그 당시 백부의 부탁으로 이 글을 남겼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홍의모의 죽음 뒤 홍의모를 추모하기 위해 원당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왕실의 근친인 홍씨 집안의 원당으로서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홍길주의 동생 홍현주는 당시 국왕이었던 순조의 하나 뿐인 동기인 숙선옹주의 남편으로서 왕실의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1811년에서 1812년까지 홍길주의 집안은 연이은 상사(喪事)를 겪었다. 1811년 홍의모가 강원도 관찰사 집무 중 사망하고 1812년 부친 홍인모가 사망했던 것이다. 그런데 1813년에는 홍현주와 숙선옹주 사이에 혼인 후 8년 만에 아들이 탄생하는 경사가 있었다. 이렇게 두 해 동안의 백부상과 부친상, 그리고 바로 다음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손이 탄생하는 등 집안의 흥복이 중첩되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담사에 홍의모, 홍인모의 추복과 집안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원당을 지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량문에는 홍의모가 강원도를 순시하던 중 백담사의 퇴락을 안타깝게 여겨 백담사의 중수를 위해 직접 자재를 보시하여 건물을 중수하였음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승려의 가난에 대한 측은지심과 승려 또한 제민(濟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명산의 주인이 없어질까’ 염려로 사찰의 중수를 도왔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 산에 머물렀던 김시습과 김창흡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우러러보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강원도 관찰사였던 유창이 1657년 강원도를 순력하면서 백담사 일대에 와서 유산기를 남기고, 홍봉조가 1749년 영시암 유희비를 세운 이력을 보면, 강원도 지방관들에게 백담사 일대에서 김시습, 김창흡에 대한 추승 사업을 벌

81) 홍길주, 「祭伯父文」, 『峴首甲稿』(박무영의 역주, 『현수갑고』 下, 23-24쪽).

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홍의모는 김창협(金昌協)의 손자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문도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홍의모는 강원도 관찰사로서 김시습, 김창흡의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해 백담사를 복원하는 일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겼을 것이다.

홍길주는 상량문에서 ‘충신이 불문에 자취를 숨겼으니 아직도 오세암의 옛 이름이 전해지고, 처사는 지팡이와 나막신에 향기를 남겼으니 이곳이 바로 삼연옹이 살던 곳이라 하네. 오직 백담사만이 그 사이에 홀로 자리 잡아서 일만 개의 봉우리가 그 밖을 에워싸네.’라고 하여 설악산에 김시습과 김창흡의 자취가 있으며 그 유적의 배경에 백담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곧 백담사가 그러한 유적 속에서 의미를 갖고 유적을 수호할 임무를 지녔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상량문을 통해 19세기 초 백담사가 강원도 관찰사의 지원으로 중수되었으며 왕실과 근친이었던 경화세족의 원당이 설치될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백담사의 위상은 오세암과 영시암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18세기에 백담사가 여러 차례 이전 끝에 왜 오세암과 영시암이 위치한 수렴동 계곡에 자리 잡게 되었나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백담사의 역사를 조선 후기 사적과 위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한용운이 1928년에 작성한 「백담사사적」은 연대 비정 오류 등의 문제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며 백담사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백담사 관련 기문, 설악산 유람록 등을

통해 조선 후기 백담사의 사적을 실증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백담사의 화재와 이전, 사찰의 신축 과정에서 편양문파에 속한 용암문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외 설악산이 하나의 법맥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백담사의 소속 암자에서는 고승들의 행적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17세기 환적 의천의 수행과 봉정암 증수, 18세기 설정의 영시암, 봉정암, 오세암 증창, 19세기 남호 영기의 대장경 봉안을 다루었다.

조선 후기 백담사의 역사를 보존한 것은 여러 차례의 화재 속에서도 사찰을 폐사시키지 않고 절터를 옮기고 사찰 명을 바꿔가면서 끝까지 사찰의 명맥을 유지한 백담사 승려들의 분투와 원력이었다. 백담사가 조선 후기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은 17세기 이후 김시습 추송 열기와 김창흡의 설악산 은거가 큰 계기로 작용했다. 그 결과 설악산은 절의를 지키는 은둔 지사의 명산으로, 백담사는 그러한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도량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승려 설정은 김시습과 김창흡의 전승을 기반으로 유불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오세암과 영시암의 불사를 완수하는 활약을 했다. 한편, 조선 후기 대문장가 홍길주의 글로 경화세족의 원당이 설치된 19세기 백담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발굴되어 백담사의 역사가 실증적으로 풍부하게 복원되길 기대한다.

(2024.03.08. 투고 / 2024.03.26. 심사완료 / 2024.03.29. 게재확정)

[Abstract]

History and Status of Baekdamsa Tem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Kyungsoon

Baekdamsa Temple(百潭寺) is a famous temple in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but not much is known about its pre-modern histor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Baekdam Temple History(「百潭寺史蹟」)” written by Han Yong-un(韓龍雲)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Baekdamsa Temple’s historical records to rewrite the history of Baekdamsa Tem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ekdamsa Temple was led by monk Yongam(龍巖)’s disciples belonging to the Pyeongyang dharma clan(鞭羊門派) in the process of its relocation and reconstruction after series of fires. And the hermitages of Baekdamsa Temple were reconstructed by renowned monks in the late Joseon. Baekdamsa Temple was widely known in late Joseon society due to the commemorative project for Kim, Si-sup(金時習) and the trace of hermit Kim, Chang-hup(金昌翕). As a result, Seoraksan Mountain(雪嶽山) became a symbolic mountain of noble hermits, Baekdamsa Temple was recognized as a important place to preserve such traditions. Hong Gil-ju(洪吉周)’s records confirmed the status of Baekdamsa Temple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Gyeonghwa Sejok(京華世族) Wondang(願堂) was installed.

□ Keyword

Baekdamsa Temple(百潭寺) Baekdam Temple History(『百潭寺史蹟』) Kim, Si-sup
(金時習), Kim, Chang-hup(金昌翕). Hong, Gil-ju(洪吉周)

[참고문헌]

『乾鳳寺及乾鳳寺本末寺誌』(아시아문화사, 1977).

『純祖實錄』

『江漢集』, 『谷雲集』, 『老隱集』, 『泛虛亭集』, 『三淵集』, 『三淵集拾遺』

『雙溪遺稿』, 『龍巖堂遺稿』, 『秋潭集』, 『七巖文集』, 『峴首甲稿』, 『海左集』

김태흡, 「南湖大師의 律行과 그 事業」, 『佛敎』 59, 1929.

강원대학교박물관, 『한계사』, 강원대학교박물관, 1985.

이승수, 『三淵 金昌翁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조성산, 「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상사학』 13, 1999.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김광식, 『첫 키스로 만해를 만난다』, 장승, 2004.

유호선, 「김창흡의 불교적 사유와 불교시」, 『한국인물사연구』 2, 2004.

홍길주(박무영·이은영 번역), 『현수갑고』(상·하), 태학사, 2006.

이경수, 「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 『강원문화연구』 26, 2007.

이흥식, 『홍길주의 꿈, 상상 그리고 문학』, 태학사, 2009.

최원석, 「조선시대 설악산 자연지명의 역사지리적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1-1, 2009.

한동민, 「일제강점기 사지 편찬과 한용운의 건봉사사적」, 『정토학연구』 14, 2010.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사학연구』 98, 2010.

김동현·강영호·김광일, 「역사문헌 고찰을 통한 조선시대 산불특성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5-4, 2011.

이경수,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설악산의 심상」, 『한국시가연구』 32, 2012.

- 김근태·이훈, 「설악산 유기문 원문 및 해제」, 『강원문화연구』 31, 2012.
- 양승민, 「매월당 김시습 초상화의 개모 과정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38, 2013.
- 최병현, 『설악산 百潭寺』, 인제문화원, 2013.
- 권혁진(외) 편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문자향, 2015.
- 허남욱, 「조선시대 설악산 유산기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 30, 2015.
- 임연태, 「설악산 권역 사찰과 관련한 시문의 감상」, 『대각사상』 24, 2015.
- 홍사성, 「'설악산문'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 『대각사상』 24, 2015.
- 강창규, 「매월당 김시습에 대한 기록, 그 사실과 기억의 변증」, 『동양한문학 연구』 51, 2018.
-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한계사지 북 삼층석탑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강원도 인제군 문화관광과, 2020.
- 김영두, 「세조 정권 비판의 상징적 인물로 김시습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연구」, 『사학연구』 148, 2022.